



임마누엘 [열매호] Vol.10, No.3, Dec.20, 2015

Emmanuel

말씀의 창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 5:22~23)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Against such things there is no law.”

(Galatians 5:22~23, NIV)

Contents

Vol.10, No.3, Dec. 20, 2015

I. 행진시리즈

02	말씀의 창 - 갈 5:22-23
04	담임 목사 칼럼 - 사람이 되라
06	믿음의 선진들 - 한국의 간디, 고당 조만식 장로 영혼 사랑의 생생한 현장
08	One Voice - 베이지역, 우리의 첫 선교지
12	형제 교회 이야기 - The Story of FMCC
14	니제르에서 온 편지
18	순회 선교 편지 - ... 35주년 감사예배가 주고 간 선물
20	청교도의 후예들 - 존 뉴턴
22	공예배 현장 - 에녹 평원 수요 예배
26	양화진 선교사 이야기 - S.F. 무어

II. 실만한 물가

28	전도 팁 - 강력한 사랑
30	임마누엘 레시피 - 육개장
32	커피 스토리 - 커피 여행, 세 번째 이야기
34	물댄 동산 - 어머니와의 세 가지 약속
36	성경속의 식물 - 싯딤나무
38	시가 있는 풍경 - 기쁨의 찬가
39	크리스천 명언 - 허드슨 테일러
40	음식 상식 -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42	크리스마스 가족 ACTIVITIES
44	초대의 글 - 반기독교 사례들

III. 임마누엘 사람들

46	나의 사랑하는 책 - 고난 후의 축복 천사도 흠모하겠네
48	베트남 선교 간증 -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50	감사 간증 -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52	일대일 제자 양육 간증 - 하나님의 은혜
54	나의 노래 - 살아계신 주
56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 가정예배로 회복된 삶...
58	푸른 목장 - 하나님의 세레나데, PSE 목장
60	임마누엘 한국 학교 글 잔치 - 가을이 되면...
62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기 - 최권사의 성지 순례 노트 2
64	팀 소개 - 선교부 중보 기도팀
66	우리 교회 좋은 교회 - 나눔 방명록

사람이 되라

지금은 전성기가 지났지만, 천재 바둑 소년으로 시작하여 세계 바둑계를 제패했던 조훈현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1953년 목포에서 태어나 4살 때 바둑을 시작하고, 아홉 살에 프로 입단을 한 후, 10살에 일본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의 스승 세고에 겐사코는 일본 기원의 창시자이자 현대 바둑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제자를 받는데 매우 엄격해서 중국인 제자 우칭위안 이후 30년 만에 받아들인 제자가 바로 열 살짜리 조훈현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바둑계 명인이 된 조훈현 9단은 최근에 '조훈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에세이집을 펴냈고, 지난 9월 16일에는 삼성그룹이 그를 초청하여 삼성 계열사 사장들 앞에 강사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온갖 적수들을 평정하고 최정상에 올랐던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의 강연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그의 스승 세고에가 가혹할 만큼 혹독하게 남겨준 교훈으로, "바둑의 고수가 되기에 앞서 먼저 사람이 되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에 앞서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될까요? 군대에 가거나 죽을 고생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아프리카 같은 곳을 여행하며 처참한 삶을 많이 보고 경험하면 될까요? 그러나 잠시 사람이 되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크고 작은 외면적 변화도 겪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성품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시지프스(Sisyphus)처럼 애쓰고 노력하여 잠시 사람이 되는 듯한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굴러떨어지고 공든 탑은 무너져버립니다. 기분 좋게 배운 선행이 교만으로 진행하며, 겸손이 위선으로 전락합니다. 겨우 성취한 순수한 사랑은 금세 시들해지고 불륜의 유혹이 해진 후 어둠처럼 스며들어오며, 욕망은 무자비한 폭군이 되어 우리 삶을 더럽히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뜨립니다.

사람이 되려는 수많은 노력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실패와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 되는 것이 당연하고 쉬운 일 같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불가능한 현실로 다가와 좌절만 안겨주고 떠나버립니다. 생각 없이 바라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착각도 들지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것이 인간의 사람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사람 되는 길은 영원히 없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영원히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인간의 사람됨이 무너진 이후, 우리 모든 사람에게서 사람이 될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심히 좋았더거'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참모습으로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우리를 그가 '심히 좋았더거'고 말씀하셨던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거라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거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사람이 회복된 사람으로 새롭게 피조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못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듯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마7:16-19).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좋은 나무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시다(요15:8-16).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글 손원배 목사

한국의 간디, 고당 조만식 장로 (1883-1950)



1945년 9월
평남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 시절의 조만식

1883년에 태어난 조만식 장로는 스물세 살 되던 해에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평양 숭실 중학교에 입학해 신학문과 기독교 교육을 5년간 받았다. 그는 기울어 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일본 유학을 떠나 명치 대학 법과에서 수학했으며 민족부흥을 소망하며 항상 세 가지에 힘썼는데, 첫째는 교육, 둘째는 근검절약하며 자작자급하여 경제를 부흥케 하는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며 체육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

명치대에서 유학을 마친 후, 남감 이승훈의 권유로 오산학교에 몸담게 되었다. 그는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9년간 재임하며 성경과 지리를 가르쳤다. 그의 교육 방침은 철저한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돕고, 학문과 지식을 잘 배워 민족중흥에 헌신하는 애국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 철학에 걸맞게, 당시 오산학교는 아침마다 학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회를 했고, 언제나 고당 조만식 장로 자신이 기도회를 주재하고 설교를 전했다. 또한, 학교에는 청소부가 따로 없어서 학생들이 청소와 수리를 나누어 담당하며 직접 나무를 메어다가 파어서 펄감으로 사용했는데, 그도 언제나 학생들과 같이 일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교장인 동시에 사감이요, 교목으로 일했으면서도 한 푼의 월급도 받지 않았다.

나라를 사랑했던 조만식 장로는 1919년 평양에서 3.1운동을 주도했고 일제의 검거를 피해 상해로 향하다가 체포되어 10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 그는 “내 살림 내 것으로”라는 구호 아래 일제의 경제적 착취에서 벗어나 자립하기 위해 조선 물산 장려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평양 YMCA 초대 총무직을 맡아 다양한 민족운동과 경제, 문화사업을 전개했다. 이 무렵 그는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장로로서 일제의 신사참배와 창씨개명(편집자 주: 일본식 성명) 강요에 철저히 저항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 조만식 장로는 순수 민간 자본에 의한 유일한 실업학교인 승인상업학교를 세웠고 신간회 중앙위원 겸 평양지 회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관서체육회 회장으로서는 체육을 통해 민족의 결단력과 민족 의식을 키워나갔다. 1932년에는 조선일보 사장으로 취임해 어려운 형편에 처한 민족언론을 살리는 데 힘썼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가 가결되자 소련 군정은 조만식 장로에게 신탁통치 지지를 요구했으나 끝까지 거절했고, 1946년 1월 평남 인민 정치 위원회에서 신탁통치 반대 견해를 표명하며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그러자 소련군은 그를 곧바로 고려호텔에 연금시켰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18일, 공산당원에 의해 그는 죽임을 당했다. 사후 1970년에 건국 공로 훈장 대한민국장이 조만식 장로에게 추서되었고, 1991년 11월 5일, 부인 전선에 여사(1904년~2000년)가 45년간 간직해 온 고당의 머리카락이 국립묘지 국가유공자 제 2 묘역에 안장되었다. 한경직 목사는 조만식 장로를 이렇게 회고했다. “여러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 왔지만, 고당 선생처럼 학생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실제로 모범을 보여 주며 그의 전 생애를 희생한 교육가는 오직 한 분이었고 기억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을 존경하게 되었지요” 실로 고당 조만식 장로는 애국 애족 지사이며 민족중흥의 선구자로서 신앙과 애국의 모범을 보인 믿음의 선진이라 할 수 있겠다.

편집부 정리
글, 사진 출처: www.hankyungchik.org / www.godang.kr

고당의 어록 중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거래를 사랑하라

정주 오산학교 교장으로 기도회에서 늘 설교를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첫째, 사람을 사랑하고 거래를 사랑하라.
둘째, 옳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셋째, 학문을 잘해서 남에게 뒤지지 말라.

서(恕) 인(忍) 근(勤)

용서하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하라.

단결하면 무슨 일이든지 된다

합해진 것을 꺾을 수는 없다.
단결하면 무슨 일이든지 된다.

극기하라 청년다와라

학생들이 청년들이라, 극기하라.
가치있는 생활을 하라. 청년다와라. 사람다와라.

끝까지 봉사충성하자

성공 여부는 다만 운명에 맡기고 남이 조소하든지 우롱하든지 우리는 그저 충성스럽게 끝까지 활동하자. 사역하자.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천직이다. 사업의 대소를 막론하고 좋은 일이어든 저돌적으로 진행하자.
다만 충성으로 봉사할 뿐이다. 이렇게 함에 비로소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베이지역, 우리의 첫 선교지

- 원 보이스 민족 선교사역 소개

‘타샤코르’(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유일하게 아는 아프간 사람들의 언어인 ‘다리’ (DARI) 입니다. 베이지역의 한인 목사가 갑자기 영어도 아닌 아프간 말을 할까요? 원 보이스에서 지난 9월 22일 FREMONT에서 시작한 초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인 ‘홍익클럽’ 때문입니다. 이곳에=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오는 아프간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들과 친숙해



지기 위해서 배운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현재 20여 명의 이슬람과 힌두배경의 초등학생들이 홍익클럽을 찾아와 자신들의 공부를 위해 여러 교회에서 자원한 유스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탄축하 만찬, 어린이 컴퓨터교실, 스포츠학교, 여름 아카데미스쿨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촉들을 통해, 먼저는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 어린이들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세워지길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소망하는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놀랍습니다. (엡3:20). 저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공의 유학생으로 필라델피아에서 1992년 미국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제가 미국에서 한인 목사가 될 뿐만 아니라, 미국을 선교지로 여기며 베이지역의 여러 소수민족을 위한 사역을 마음에 품게 된 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WTS)에서 졸업을 앞두고 ‘졸업 후 어디로?’를 놓고 기도하던 저에게 뜻밖에도 주님은 사도행전 수업시간에 교수님 (RICHARD GAFFIN)의 강의를 통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은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 민족 개념입니다!” 라고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는 ‘유대인’, 사마리아는 ‘혼혈들인 반(半)유대인’, 그리고 땅끝은 ‘비유대인 NON-JEW-

ISH, 곧 이방인 GENTILE’이며, 지역보다는 사람(ETHNIC)을 보라”고 했을 때, 수많은 민족이 바로 내 곁에 이미 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땅끝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미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인근 지역은 당시 베트남, 캄보디아 난민들이 많이 거주해 있었고, 팔레스타인 목사님, 이란 목사님, 인도 목사님, 이집트 목사님 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켓에서 전도하다 만난 중국인 장로님 (GEORGE KUO)과 매달 여러 민족 목사님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NAIAM (NORTH AMERICA INLAND ASIAN MISSION)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절감한 것은 같은 지역에 수많은 민족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전도가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민족교회가 있어도 목회자와 가족이 너무 열악한 상황에서 힘겹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목사님의 경우, 아내와 함께 평일 낮에는 일을 해야 했고, 남는 시간을 쪼개어 캄보디아인들을 섬기고 전도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모든 민족사역자들이 이같은 상황이었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하며, 한인교회들을 찾아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열악한 캄보디아교회였지만, 이 교



회는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캄보디아 난민을 전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의 조국 캄보디아를 복음화하기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교회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이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종교와 전쟁, 빈곤 등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자신들의 조국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빼낸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들의 조국과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와 성도들 곁에 두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끝들이 모여 있는 선교지 중의 선교지가 바로 베이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의 5세 이상 인구 중 43.1%인 14,751,000명이 가정에서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좁혀,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44.2%인 342,000명, 산호세의 경우는 55.5%의 489,000명이 영어 외에 다른 언어로 소통하는 이중언어자들입니다 (AMERICAN

COMMUNITY SURVEY 2009, U.S. CENSUS BUREAU). 이 통계는 베이지역 인구의 절반 이상이 영어 외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당 언어국 선교의 자원됨을 말해 줍니다. 전도받지 못한 소수민족들로 둘러싸인 선교지인 미국에서 목회자로, 성도로 부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원 보이스 소수민족 선교 사역입니다.

이사야 49:6은 우리에게 두 가지 소명을 알려 주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참 이스라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실 일을 알려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상명령(마28:19-20)의 구약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국 민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



는 일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고,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이지역 300여 개의 한인교회는 이곳에서 '또'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빛이 되라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지역 소수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원 보이스 사역은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한인 이민교회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멀리 있는 민족들을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일은 참 귀합니다. 동시에 선교지인 이 베이지역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또한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오늘이라도 손잡고 만나 줄 그들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 보이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소수민족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후원하고 참여하시는 임마누엘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곳까지 오다가 많은 난민이 목숨을 잃습니다. 얼마 전 터키 해변에서 싸늘한 시체로 떠밀려온 시리아 어린이 알리안

쿠르디(ALYAN KURDI)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치는 어린이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홈웍클럽을 섬기는 저와 자원봉사자들의 기도 속에 흘리는 눈물이 되고 있습니다. 홈웍클럽에서 만난 아프간과 인도인 어린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언젠가 자신들의 조국에서,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에게 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시간문제입니다. 오슬랜드에서는 버마 교회가 홈웍클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권의 버마인 자녀뿐 아니라, 부탄인, 티벳인 어린이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선교지가 된 베이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부흥을 보게 될 시급한 이 선교의 일에 함께 하십시오.

글 유기은 목사 (ONE VOICE 대표)

THE STORY OF FMCC

FMCC 이야기



THE FIRST MONGOLIAN CHRISTIAN CHURCH WAS OFFICIALLY ESTABLISHED IN MARCH, 2006. SINCE THEN, GOD HAS BLESSED US ABUNDANTLY AND GENEROUSLY. HOWEVER, OUR HISTORY GOES WAY BACK. BY 2003, MONGOLIAN BELIEVERS HAD ALREADY STARTED TO MEET IN CELL GROUPS AND THEIR NUMBERS HAD GROWN AND GROWN. THERE WERE ONLY 15 MEMBERS THEN WITH \$100 IN THEIR BANK ACCOUNT. TODAY, THE MONGOLIAN CHURCH IS STANDING STRONG IN GOD AND SERVING TO MONGOLIAN COMMUNITY BY SPREADING GOD'S KINGDOM.

IN A WAY, FMCC IS A VERY PIONEERING CONGREGATION AND IT CONTRIBUTED A LOT IN THE DEVELOPMENT OF MONGOLIAN CHURCHE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IN 2009, FMCC HOSTED THE FIRST ANNUAL CONFERENCE OF MONGOLIAN CHURCHES IN THE UNITED STATES, AND TWO YEARS LATER, FMCC HOSTED

몽골 제일 크리스천교회 (FIRST MONGOLIAN CHRISTIAN CHURCH)는 2006년 3월에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는 사실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무렵에 이미 몽골인 신자들이 셀 그룹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멤버가 15명밖에 없었고 은행 잔액이 100불에 불과했던 저희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몽골인 커뮤니티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면에서 FMCC는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국 곳곳에 있는 몽골인 교회들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FMCC에서 미국에 있는 몽골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첫 컨퍼런스를 개최하였고, 2년 후에는 청소년 컨퍼런스를 처음으로 열



THE VERY FIRST ANNUAL YOUTH CONFERENCE AMONG MONGOLIAN CHURCHES.

FMCC HAS SEVEN AGE GROUP MINISTRIES, FIVE CELL GROUPS AND TWO OUTREACH MINISTRIES. THE CHURCH ITSELF IS VERY ACTIVE, YOUNG AND ALIVE BECAUSE ALMOST THE HALF OF THE CHURCH MEMBERS BEING YOUTH AND YOUNG ADULTS. BECAUSE OF THIS, THE CHURCH IS VERY ATHLETIC AND FMCC HAS TWO SPORTS TEAM OUTREACH: VOLLEYBALL AND MONGOLIAN TRADITIONAL GAME CALLED 'SHAGAI HARVAA' (IT IS LIKE ARCHERY WITH ANGLE BONES OF DEER'S).

IN ADDITION, WE ARE VERY THANKFUL TO PASTOR SON AND IMMANU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FOR SUPPORTING US ALL THESE YEARS. THE BACKYARD PROJECT WAS A BIG BOOST NOT JUST FOR OUR CHURCH AND MINISTRY BUT IT GRANTED US TO HOOK MORE FISH THAN EVER. A LOT OF MONGOLIANS AND OTHER ETHNIC GROUPS COME TO PLAY IN THE BACKYARD AND IT GAVE US A GREAT OPPORTUNITY TO EVANGELIZE TO THEM. PLEASE PRAY FOR OUR CHURCH AND MINISTRY.



었습니다.

FMCC에는 연령별로 일곱 개의 사역이 있습니다. 다섯 개는 셀 그룹 모임이며 두 개는 선교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우 활동적이며, 젊고, 살아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멤버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우리 교회는 배구와 몽골 전통게임 ('SHAGAI HARVAA', 사슴의 뼈로 하는 양궁 놀이)을 하는 두 개의 스포츠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해에 걸쳐 저희를 후원해주는 손원배 목사님과 임마누엘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놀이터를 지은 일은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많은 몽골인 및 다른 민족 그룹들이 저희 뒤뜰에 놀러 오게 되어서 저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글 오기 목사 (몽골 제일 크리스천교회 담임)
번역 편집부

July-Aug 2015



니제르에서 온 편지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저의 한국 방문 중 가장 감동적인 시간은 양화진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양화진은 한국에 와서 섬기시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묻히신 곳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역사 자료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관광객들을 모지로 안내했습니다. 방문하는 내내 눈물로 목이 뻐졌습니다. 1800년대 말은 반대세력들, 질병, 영



적 무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나라는 그 시절 선교사들의 인내와 한국을 향한 깊고 경건한 사랑 덕분에 한 세기 후에는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의 이 방문은 니제르와 그 나라 사람들을 향한 저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아편젤라 가정은 2대(부모, 아들의 가족, 딸의 가족)에 걸쳐서 그들의 모든 힘을 한국의 교육계를 위해 즉, 크리스천 남학교와 여학교를 세우는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도 힘을 썼습니다.



“내게 천 개의 목숨이 있다면, 한국인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섬기신 초대 선교사님들 어린 자녀들의 묘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 12:24)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공사가 신실한 후원자들에게서 온 뜻밖의 헌금 덕분에 재개되었습니다. 제가 니제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수푸 (Issoufou)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인부들을 돌려 보내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는 10월에 (니제르에서는 대학교가 10월에 시작됩니다) 시작될 새 학기에 신입생으로 입학할 자녀들을 보내려고 준비 중인 마을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물어왔습니다. 저는 달리 대답할 말이 없었지만, 계속 기도하라고, 그리고 한국에는 저를 후원하는 교회도, 친척도, 지인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달에 미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수푸도 그때까지 기다리면 새 학기에 맞춰서 공사를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세 개의 헌금 중 하나는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다섯명의 친구들을 통해 저는 몇 십 년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단짝 친구를 찾았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이 멧쩍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녀는 장로가 되고 저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를 이야기하며 놀랐습니다. 제가 저의 니제르 이야기를 그녀의 간절한 귀에 들려주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제 말을 멈추고, 공사를 마칠 수 있게 2만 불을 헌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입이 썩 벌어졌습니다! 저의 첫 생각은 그렇게 큰 액수를 어린 시절 친구에게서 받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얼마씩 남기신 유산에 관해서 얘기했고, 자신은 아버지를 기릴 수 있는 뜻깊은 일에 그것을 쓸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깜짝 만남을 조율하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니제르의 알파와 오메가 계좌로 헌금을 보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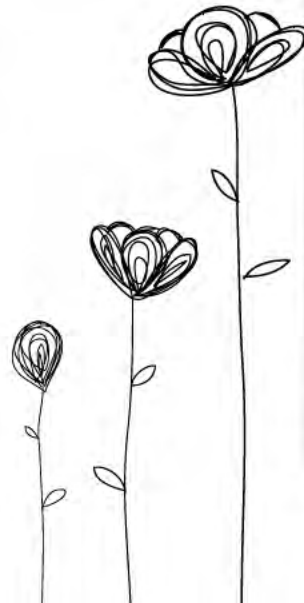
니제르의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11개의 언어 중에서, 7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동서 풀폴드, 카누리, 타마자크, 북쪽 송하이 지역의 두 언어, 다자카) 자르마와 하우사는 그들 언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기도제목

- * 사헬 아카데미에 부족한 교사들을 보내 주시길
- * 알파와 오메가 센터가 가을학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 * 기독교대학교 기숙사 완공이 잘 마무리되고, 첫 기숙사 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은 물론 주위의 모슬렘들에게 귀한 모범이 되도록
- * 이 기숙사가 속히 자가 운영되며 기숙사 학생들이 동네 어린이들을 위한 과외 공부 및 활동 운영을 위하여
- * 모슬렘 대학생들을 끌기 위한 컴퓨터, 기타, 키보드 레슨, 탁구, 농구 등 필요한 기구 구입을 위하여
- * 기독교 여학생 중,고등학교 장학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 * 하나님께서 니제르를 보고하람, 알카에다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 * 안식년 동안 정혜림 선교사의 건강과 치료 문제 해결되도록
- * 내년 8월 니제르로 돌아가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계속 가르칠지, 현지인을 위한 선교 사역에 집중할지, 한국 선교사 후보생들을 교육하며 니제르에 가끔 방문 사역을 할지 등 진로 문제에 대해 주님의 인도 하심에 잘 순종하도록

글 정혜림 파송선교사 / 번역 편집부



July-Aug 2015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

The most moving event of my stay in Korea had to be the visit to YangHawJin, the designated burial place for the foreign missionaries who died serving in Korea. The volunteer guides show the history slides and guide visitors through the tombs. Throughout the visit, my throat was choked up with tears. Indebted to their perseverance, in spite of difficult situations at the end of 1800's—opposing forces, disease, spiritual ignorance, etc — and their deep, godly love for Korea, Korea became the second largest missionary sending country in the world a century later!



This visit gave me a chance to reconfirm my unwavering love for Niger and their people.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 The Appenzeller family: 2 generations—parents, son's family and daughter's family — all poured their energy into education starting the first Christian schools in Korea, one for boys and another one for girls. Also, they worked on Bible Translation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Tombs of young children of the early missionaries

Alpha et Omega

After a short pause, the construction resumed, "Praise God!", with surprise offers from the faithful supporters!

Shortly after I left Niger, I received a message from Issoufou informing me that the construction work had come to a complete stop, and he had to release the workers. He asked me how he should respond to the village pastors who were getting ready to send their promising college freshmen to Alpha et Omega starting this October (the start of the new school year for the university in Niger). I didn't know what to say, but to tell him to keep praying and that we would just have to wait until I get back to the US next month since I had no supporters, no relatives, nor any connections to any of the churches here in Korea. But both Issoufou and I knew that it would be too late then to restart the construction and have it completed before the new school year.



According to the culture it was necessary to make a fence dividing the men and women dormitories. We hope to build a more permanent one later but for now this chicken-wire fence is better than none.

Then, God stepped in! Of the three donations we received, one was a total surprise. Through grapevines of 5 different friends I found my best friend from my childhood who I hadn't seen for many decades. We were both sheepish to see each other's wrinkled faces, but so surprised to find out how God had led our lives — she as an elder, I as a missionary. As I started to unfold my story in Niger to her eager ears, she stopped me in the middle and offered to pay for the \$20,000 for the final work. My mouth dropped! At first it seemed so weird to receive such a big lump sum from a childhood friend. Then she began to tell me the recent passing of her father, who had left a small sum to each of his children, and how she'd been praying seeking for a meaningful way to use the funds to commemorate her father. She was so sure that God had orchestrated our surprise meeting to accomplish this! The next day she wired the funds to Alpha et Omega account in Niger!

Pray for Niger's Bible Translation

Of the 11 languages spoken, seven projects in progress (Eastern & Western Fulfulde, Kanuri, Tamajaq, 2 languages in Northern Songhai cluster, Dazaga), Zarma and Hausa have the Scriptures in their language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produces many seeds." <John 12:24>

Mail Support to: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small>Checks should be made payable to Wycliffe Bible Translators with a separate: "Preference for the Wycliffe ministry of Aileen Chung, #215379"</small> Electronic Support: www.wycliffe.org/Partnership.aspx?mid=A2C0RE (the third from the end is a number zero)	Field Address: Aileen Chung Sahel Academy B P 10065 Niamey, Niger West Africa aileen_chung@sil.org	Stateside Address: Aileen Chung 3290 Delaware St Oakland, CA 94602 tkchung@gmail.com
---	--	---

상호세 임마누엘 교회 창립 35주년 감사예배가 주고 간 선물



임마누엘 교회 창립예배에 협력선교사로 초대하여 주신 교회와 선교위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목사님들이 앉으시는 자리에 특히 3대 목사인 고인이 앉을 그 자리에 대신 앉는 순간, 23년의 세월이 머리를 스치며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년의 짧은 목회였기에 그이를 보낸 후 감정은 매우 착잡하고 성도들 앞에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를 협력선교사로 정하시고 사모를 위한 사역을 위해 뒤에서 후원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라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쉬움과 죄송함의 그 자리는 어느덧 위로의 자리, 감격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은혜로운 순서들이 지나간 후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어느 새신자도 소개하는 순서가 없습니다. 비록 대통령이 오신다 해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꼭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하시는 순간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는 당황하면서 침중들 앞에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제 자리에 앉는 순간 희한하게도 남편을 앞서 보낸 이후 20여 년의 세월 동안 꼭꼭 감춰 두었던 상처의 감정들이 홍수에 밀리듯 씻겨져 내려가는 동시에 딱지가 떨어져 나가는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종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든 감사함으로 남은 일에 충성하겠습니다.' 사모를 위해 일하는 여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다시 눈물로 감격하며 달라스를 향한 비행기에 오르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 보다 가볍고 신이 났습니다.

부모님의 개척교회 시절에 어린 저로서는 배고픔과 가난의 고통을 겪으면서 사모인 어머니의 탄식과 통곡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성장하는 동안 '왜, 한국교회 목회자 사모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사모 사역에 대한 사명이 움트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목사와 결혼하여 행복한 사모의 모습을 보여 주지'는 소원을 품고 22세에 목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목회자, 교수, 부흥사의 아내로 내조하다가 뜻하지 않은 홀사모의 눈물 그리고 재혼의 경험을 겪는 동안 오히려 사모들을 향한 마음은 점점 더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한 사모 상담교육원을 뒤로 한 채 미국으로 건너오자 남편과의 사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홀사모의 처절한 고통을 몸소 느끼게 되면

서부터 오히려 오지에서 눈물 흘리는 사모들을 향한 눈물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크리넥스가 되어 이제는 훨훨 날아 지구촌 끝까지 가고 싶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밧모섬에서 눈물 흘리는 사모님 한 분을 위해 20시간 넘는 비행을 하고 또 배를 타고 찾아간 후 그곳에는 한국 선교사님 부부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모 사역의 큰 주제는 '사모가 행복하면 목사가 행복하고, 목사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 집니다.'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었음에도 이제는 지경을 넓혀 주시어 요르단, 뉴질랜드, 이집트, 영국, 동남아시아, 발칸 지역 등으로 가서 사모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하는 순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들, 그 어떤 말도 들어 주는 이 없는 외로운 길을 가다 지쳐 쓰러진 여인들을 찾아다니며 함께 울고 함께 웃다 보니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 35세에 사모들을 위한 사모 전문 전화 상담으로 시작하여 사모 상담 교육원, 사모 신문, 월간 사모, 사모 세미나, 사모 교실, 사모 축제, 사모 카톡방(사모 에이레네방) 등으로 사역을 펼치게 하시더니 사모의 쉼터를 허락하시려고 준비하라 하십니다. 오지에서 사역하다 쉴 곳을 찾아 나서도 보이지 않아 마침내는 병이 들어 사역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하는 사모들의 유일한 소원인 사모들의 쉼터를 위해 또 하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사랑의 보리떡 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담긴 12 광주리로 보리떡 담기운동을 시작하여 '황순원의 사모 교실' 책자 보내기,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사모들을 위한 사모 축제 및 사모 교실, 홀사모 자녀 장학금, 지병이나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모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지친 사모들의 쉼터를 위한 사모 센터(사모 동산), 사모들의 정체성 확립과 재교육을 위한 '사모 아카데미' 건립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의 따뜻한 기도의 손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35년의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손

길로 지켜 주시고 성장 발전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에서 주의 복음 위해 달려가시는 주의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신 임마누엘 교회 당회와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교역자님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황순원 순회 선교사



존 뉴턴



<http://www.cowperandnewtonmuseum.org.uk/john-newton/>

찬송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사자로 잘 알려진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디모데에게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듯이(딤후1:5), 존 뉴턴에게도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대부분 시간을 뉴턴의 교육을 위해 바쳤으며, 애초에 뉴턴을 목사로 기르려고 어릴 때부터 교육에 힘썼으나, 뉴턴이 일곱 살이 못 되었을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후에 그가 많은 도덕적인 타락과 방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어릴 적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때문이었다는 것을 훗날 그의 간증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뉴턴의 생애는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아버지는 얼마 후 재혼하였고, 그는 기숙 학교에 보내져 그곳에서 교육을 받다가 11살에 선원 생활을 시작했고, 거친 선원들 틈에서 부도덕하고 방탕한 언행과 생활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17살 무렵, 뉴턴은 베넷트의 "기독교 수사서"(Benet's Christian Oratory)를 읽었다. 책의 내용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추천된 삶의 양식을 따라,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일기 쓰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뉴턴의 생각이 약간 종교적이 되었으나, 외관상의 선(善)은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없었으므로 안개처럼 금방 사라져 버렸다. 오히려 그의 생활은 전보다 더 나빠져 기도 대신 저주와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다. 18세 때, 아버지의 추천장으로 편안하고 존경을 얻을 수 있는 해군 소위 후보생의 자리에 배치되었으나 탈영하였고 곧 체포되어 매를 맞고 면직되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팔려 극심한 고통을 경험한다. 1747년 2월 어느 날 오후, 그의 동료가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보고 연기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15개월 간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된다. 뉴턴을 구해 준 상선 선장의 호의로 몇 개월 간 선원 생활을 하게 되지만 모든 은혜를 잊고 계속 타락한 생활을 한다.

1748년 3월,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심한 폭풍우를 만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이라고 부르짖었고 이는 그가 처음 입 밖으로 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갈망이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무서워했고 만일 '내가 오랫동안 대적해 온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하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들, 방탕한 생활, 특히 복음을 비속한 조롱거리로 삼았던 뻔뻔한 죄들을 떠올렸다. 자신과 같은 죄인이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있을 수 없으며,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에 너무 크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그렇게 조롱했던 예수의 생애와 죽음, 자신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 중에 그를 신뢰하게 될 자들을 위한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 시점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는 말씀으로 믿음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그의 의문에 답을 주셨다. 또한 신약 성경 통독 중, "탕자의 비유"(눅 15장)를 읽고 충격을 받는다. 그는 탕자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예시(豫示)한다고 생각하였고, 탕자 아들을 맞이하려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은 죄인들을 돌키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그리하여 아일랜드에 도착하기 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육체로 나타나셨다"는 지고(至高)한 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런던으로 돌아온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다. 그때 심한 열병에 걸려 고생하면서 영적 고독과 어려움을 겪자, 마침내 그는 비인도적인 노예 사업을 포기하고, 1750년 어머니 옛 친구 딸인 메리 케틀렛과 결혼하였고, 얼마 후 조수(潮水) 측량사 직에 임명되었다. 새로운 일자리는 그에게 많은 여가와 신앙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이제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고,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신,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어, 히브리어, 시리아어를 공부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글을 쓰며 시간을 보냈고 "다

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갈1:23-24) 말씀에 감명을 받아 하나님 은혜의 풍성함을 공중 앞에서 증거하고자 결심했다. 그리하여 1758년, 요크의 대감독에게 목사직 안수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후, 1764년, 오울리의 목사직 제의를 받고 오울리 교구의 목사가 되어 15년간 목회를 감당한다. 그는 이에 대한 자신의 감회를 이렇게 진술했다.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무참히 버려진 노예 중 하나인 내가, 아프리카 연안의 참혹한 생활로부터 건지어져 마침내 세계의 도시 중에서도 으뜸가는 교구 목사로 지명된 것은 여기서 그러한 은혜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특이한 실증과 기념으로 서기 위함이고, 역사 설교 그리고 저술을 통하여 널리 세계에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되었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1780년 뉴턴은 런던의 성 메리울 노쓰 교회로 옮겨서 생을 마칠 때까지 28년간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목회하는 동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큰 감화를 주는 설교자로서 성공적인 생을 마무리하였다. 1807년 12월 21일 죽기 한 달 전 그의 고백은 죽음조차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담대한 승리의 고백이다.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쇠할 때 우리 마음의 힘이요 우리의 기쁨으로써,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분을 알며 그분이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연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편집부 정리 출처 <http://thevine21.hompeee.com>

인생의 황금기, 예복 평원 수요 예배



자욱이 깔린 안갯속을 가르며 핸들을 재촉하여 교회로 도착한다. 주차장을 바삐 오가는 운전 봉사자들의 섬김을 시작으로 예복 수요모임은 시작된다. 각 곳에 기다리고 계시는 노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 이른 아침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다. 현대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으로 인해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의해서 예복 평원을 중심으로 한 은퇴 후의 예배와 모임은 질적인 향상과 함께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라 믿는다.

임마누엘 교회의 예복 평원은 인생의 전성기를 보내시는 65세 이상 성도님들의 모임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예배를 통해 영성을 회복하고 목장모임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며 각 특별활동과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통하여 건강한 영혼과 정신과 몸을 가꾸어 나가는 시간이다. 수요일마다 9:30분에 중보기도를 시작하며 예복 모임은 시작된다. 10:00~11:00 예배드리고, 11:00~12:00 특별활동, 그리고 12:00~1:00까지 점심 식사 후 해산을 한다. 일곱 분, 김옥남 목자, 엄귀섭 목자, 윤여덕 목자, 최정자 목자, 김광성 목자, 탁은숙 목자, 김사인 목자님들과 다섯분의 부목자님들이 섬기는 목장은 일곱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별활동 내용으로는 매월 첫 주에 목장모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목원들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여 또 한해를 맞는 생일축하가 있다.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큐티교실(박옥진 권사님), 찬양교실(박종철 목사님), 성경 인물교실(함영선 장로님), 컴퓨터교실(채용석 장로님), 서예교실(서진숙 집사님), 건강교실(김광성 집사님), 시사교양교실(유택종 장로님) 등, 특활강사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노부모님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며 영육간에 유익한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주에는 지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특강을 듣고 있으며 봄, 가을에는 호도 관광과 야외 예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는 노부모님들을 위해 침을 놓아 주시는 박에스터 권사님의 침술 방은 인기 방이다. 매월 둘째 주에 직장을 잠시 비우고 달려와 부모님들의 건강을 점검해주는 간호사님들의 수고는 참으로 따듯하지만 하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피아노로, 기타로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해 주시는 찬양팀들을 우리는 예복 평원의 꽃들이라 한다. 부모님들의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전날부터 이리저리 뛰며 시장을 보고, 맘을 훌리며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주방팀과 시무 권사님들의 섬김의 향기는 음식 맛과 함께 늘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적신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야가 흐려 운전할 수가 없고, 순간 판단력이 떨어져 위험한 순간들을 몇 번 겪던 분들에게 운전 봉사자들이 발이 되어 주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됨에 얼마나 행복해하시는지 모른다. 화요일 아침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다. “전도사님, 밖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만나옵니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날짜가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는 어떤 목원들을 위해 매주 전화로 챙겨주시며 기도와 돌봄으로 섬기시는 목자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

오늘도 성경 찬송을 옆에 끼고 예배를 사모하나 참석지 못하는 양로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만난다.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얼굴에 정돈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지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순간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지내고 계신다. 보고 싶은 벗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오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 금방 또 찾아뵙겠노

라고 말씀드리며 꼭 안아드리고 나오면 외롭고 쓸쓸함이 섞인 웃음으로 답해주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나오는 발걸음은 늘 착잡하다.

최근 한국의 노인들에게서 이런 가사가 유행했다. “넌 늙어봤냐? 난 젊어 봤다.” 모든 젊은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올 늙음, 그땐 누구에게나 의지해야만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이다. 예녹 평원의 예배를 위해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봉사자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마음을 다해 감사드린다. 고마운 분들의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과 자손들에게 갚아 주실 것을 믿으며 무릎으로 간구하고 있다.

글 이 에스더 전도사 (예녹 평원 담당)



S.F. 무어

(Samuel Forman Moore 1860-1906)

'백정과 가난하고 억눌린 백성을 위한 전도'

- 백정 전도의 개척자

무어는 '백정 전도의 개척자'이자 '백정 해방운동의 조력자'로 칭해지는 인물이다. 그는 미국 매코믹 신학교 재학 중 언더우드로부터 한국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고, 졸업 후 32세 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는 꾸준한 노방전도로 사람들을 모아서 곤당골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도 열었다. 학생 중에 관자골에 사는 백정 박 씨의 아들, 봉주리가 있었다. 어느 날 봉주리에게서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무어는 박 씨를 여러 차례 위문하였다. 그런데 하루는 무어가 외국인 한 사람을 박씨에게 데리고 왔다. 바로 고종의 주치의 예비슨이었다. 예비슨은 여러 차례 왕진하면서 정성스럽게 치료해 주었고 마침내 박씨는 완쾌되었다. 박 씨는 왕의 주치의가 짐승 같은 백정을 치료해 준 것에 감격해서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였고, 세례를 받고 '성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무어 선교사 가족



무어 선교사 묘역



에비슨 선교사



백정이 일하던 푸줏간의 모습

- 복음에는 차별이 없나니

당시 교회에 나오던 양반 교인들은 백정과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없다면서 예배당 앞쪽에 양반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달라고 무어에게 졸랐다. 무어가 '복음 안에서 신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거절하자 결국 이들은 따로 교회를 세우고 갈라졌다. 한편 신분차별에 설움 당하던 많은 백정은 복음 안에 차별이 없다는 무어와 박성춘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3년 후인 1898년 가을에 곤당골 교회는 분리되었던 홍문동 교회와 다시 합하여 백정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중앙교회로 거듭났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백정교회로 불렀다. 이후 중앙교회는 1905년 8월에 예배당을 승동으로 옮겨 이름도 승동교회가 되었다.



승동교회

-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열매

장티푸스에 걸렸다 살아난 백정 박성춘의 아들 박서양은 예비슨이 세운 제중원 의학고 (세브란스의대의 전신)의 1회 졸업생으로 모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것은 당시 백정 신분으로서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박성춘은 승동교회(곤당골교회)에서 1911년 장로로 안수를 받았는데, 3년 후 왕손이던 이재형도 같은 승동교회에서 장로로 안수를 받았다. 이것은 차별 없는 복음을 직접 경험한 상징적인 일이면서 동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무어의 사역이 거두어들이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었다.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던 무어는 1906년 장티푸스에 걸려 46세의 나이로 제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교수시절의 박서양



세브란스 연합의학교, 박서양의 강의 모습

출처: <http://www.yanghwajin.net>

강력한 사랑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씬에코인데 '프레스 기계로 찍어 누른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프레스 기계로 우리를 눌러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다면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5)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전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아브람'과 '사래'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브람은 존귀한 자이며 만민에게 존경을 받는 자이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때 세계 만민이 그를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되었다. 사래는 '공주'라는 뜻이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가? 하지만 홀로 아름다운 공주를 넘어 '열국의 어머니'를 뜻하는 사라가 되었을 때 그녀는 진정한 축복을 받았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브람의 삶을 살아도, 열방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아브라함(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름답고 혼자서만 호의호식하는 공주(사래)의 삶을 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어머니(사라)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다. 많은 생명을 낳는 영적 아버지와 영적 어머니의 삶,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4:15-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무엇을 본받으라고 한 것일까? 복음으로 수많은 자녀를 낳는 영적 아버지가 되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전도는 어명이다- 중에서



올해로 두 아이가 모두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큰 아이가 떠나고 둘째가 집에 아직 남아 있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리움 외로움 등 여러 가지 마음도 있고요. 아이 둘 낳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졌던 모든 시간 계획이 남편과 둘만 있었던 신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 한가롭고 여유 있어 좋은 것 같다가도 넘치는 적막감에 괜스레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없는 험한 식탁에 마주앉아 식사하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있으면 아이들이 있었을 때에는 생활의 분주함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동질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함께한 세월과 추억이 쌓여 남편이 또 다른 나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을 보낸 후의 새로운 시간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엄마 마음이 다른가요. 마냥 외로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아이가 전화해 감기에 걸렸다고 하면 마음에 걸려서 밥은 먹고 다니나, 빈 속에 약 먹고 더 아픈 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온종일 맘을 부산하게 만들고, 아파트로 나온 큰 애는 밥 먹고 다니기가 얼마나 번거로울까 하는 걱정도 늘 마음 쓰이는 것이 엄마의 마음 아닐까 싶네요. 작은 아이 학교 탐방 주간이 되어 직접 전해주려고 아이들 위해 국을 끓여 봤습니다. 감기 기운 있을 때 전자레인지에 데워 밥 말아 먹으면 감기가 푹 떨어질 육개장이예요. 큰 아이

10팩, 아직 기숙사에 있는 작은 아이에게는 6팩씩 작은 집락에 얼려서 진공 포장했습니다. 아픈 친구들에게도 나눠주면 더 좋겠죠. 음식을 준비하며 주님 생각을 합니다. 아플 때, 힘들 때 언제나 제 곁에 계셔 주시는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할 때도 늘 내 옆에서 안타까워하시며 손 붙잡아 주시는 주님, 그분의 사랑을 배워 아이들에게, 이웃에게 조금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글 박숙희 B



-육개장 만드는 법-

*재료: 소고기 양지 2파운드, 숙주 1봉지, 마른 고사리 150그램, 느타리버섯, 대파 반단, 무 반개, 달걀 2개
 *육개장 양념장: 국간장, 맛술, 고춧가루, 고추기름, 다진 마늘, 생강, 후추 약간
 *마지막 육개장 국물 간 할 때: 소금, 국간장, 연두 약간으로 나머지 간을 맞춘다.

1. 양지는 물에 담가 핏물을 30분 정도 빼준 후에 냄비에 깨끗한 물을 받아 고기를 넣어 고기가 다 익을 때까지 육수를 내줍니다. 고기를 건져서 식혀준 후에 먹기 좋게 찢어 놓습니다.
2. 고사리, 대파, 느타리버섯, 숙주는 모두 잘 익혀서 준비해 놓습니다. 위의 고기와 채소를 모두 양념장에 버무려서 육수와 함께 끓여줍니다. 마지막에 달걀을 풀어 넣어줍니다.
3. 식사 시에는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첨가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커피 여행**

새 생명호와 기쁨호에서는 커피 원두 자체의 맛과 향이 달라지는 여러 가지 면들을 보아 왔는데 같은 원두일지라도 커피를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그 맛이 크게 좌우 되는데 열매호에서는 커피의 다양한 추출법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카 포트 (Mocha Pot)

굵게 간 원두와 물을 모카 포트 바스켓에 채운 뒤 주전자 부분을 닫아 주고 불 위에 놓고 끓이면 수증기가 원두를 통과 하면서 에스프레소 원액이 추출된다. 수증기가 커피 빈의 기름 성분까지 함유해 지용성 향이 그대로 나와 다소 거칠지만, 고전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

프렌치 프레스 (French Press)

유리나 스테인레스 관 안에 굵게 분쇄된 원두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스틱으로 골고루 젓고 3~4분 후 금속 거름망이 달린 손잡이를 아래로 눌러 커피를 포트 밑으로 분리한 후 따라 마시는 방식이고 커피 기름이 모두 물에 녹아 내려 커피 맛과 향을 진하게 느낄 수 있다.

에스프레소 머신 (Espresso Machine)

전통적인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를 추출하는 머신으로 증기압식, 피스톤식, 펌프식 세 종류가 있으며 모두 보일러의 압력과 모터를 이용해 빠른 시간에 에스프레소를 추출

할 수 있다. 다른 추출 방법보다 향미가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고 사용하는 커피 원두도 보통 강하게 로스팅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쌉싸래한 맛을 느낄 수도 있다.

기계 드립 (Automatic Drip)

전자식 제어를 통해 자동으로 뜨거운 물을 고르게 부어 커피를 뽑는 방법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청소도 간편해서 가정용이나 파티용으로 대량 커피를 추출해야 할 때 많이 사용한다. 편한 만큼 맛이나 향은 다른 추출방법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핸드 드립 (Hand Drip)

중간 굵기로 간 커피 원두를 종이 또는 금속 필터에 담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조금씩 물을 골고루 따라 주어야 하는데 커피 가루가 뜨거운 물을 머금고 살짝 부풀어 오를 정도로만 부어 주면 커피의 맛과 향을 더 잘 살려서 추출할 수 있다. 추출 온도와 시간 그리고 추출량에 따라 맛의 차이가 크다.

베큘 포트 (Vacuum Pot)

베큘 포트는 상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사이 윗부분에 고정된 필터가 있다. 물을 아랫부분에 담고 불로 가열하면 뜨거운 물이 증기압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이때 윗부분에 커피를 넣고 저어준 후 밑에 불을 끄면 커피가 필터를 통과해 추출되는 방식이다. 사이펀(Siphon)으로도 잘 알려진 화려하고 가장 깔끔한 커피 맛을 뽑아낼 수 있지만, 준비부터 세척까지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침출식 커피 (Steeping)

커피 가루를 9시간 이상 상온의 물에 담가 커피 액체를 따로 분리하므로 침출식이라고 부르는데 상온의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커피를 추출하는 더치 커피 (Dutch Coffee) 또는 콜드 브루 (Cold Brew)가 침출식을 사용한 대표적인 커피이다. 똑같은 커피를 사용했을 경우 다른 추출 방법보다 산이 70% 정도 적고 숙성된 맛을 느낄 수 있고 냉장고 안에서 10일 정도 장기 보관이 가능하다.

커피 건강하게 마시는 팁 몇 가지!

커피에는 클로로겐산(Chlorogenic Acid)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 효과 및 항산화 작용, 항암 작용,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클로로겐산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다크 로스팅 된 커피일수록 함유량이 적어 가볍게 로스팅 된 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카페스톨(Cafestol)과 카와올(Kahweol)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금속 필터를 사용해서 커피를 거르는 것보다 종이 필터를 사용해서 거르면 원두에 있는 이 지방성분들을 95% 정도 거를 수 있어 더 건강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카페인 성분은 신장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번비에 좋고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에 좋다고 알려졌다. 커피 종류마다 카페인 함유량이 다르지만 보통 성인 기준 하루 커피 3잔 정도로 알려졌고 커피, 홍차, 녹차에 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은 철분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특히 빈혈로 철분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은 식사 전후 또는 철분제 복용 1시간 전후는 이런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모든 건강 팁은 설탕과 크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한 것이고 크림 대신 우유, 설탕 대신 꿀을 조금 넣어 마시는 것이 좋다.

"저희집 커피가 좀 맛이 없지만..." 가끔 제게 커피를 주실 때 듣는 말인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히 저... 커피 안 가려요. 그리고 좋은 분들과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기에 나눔과 만남 속에 있는 커피를 좋아합니다. 열매 호로 커피 여행을 마무리하며 볶은 지 3일 된 에티오피아 커피빈을 갈아 핸드 드립으로 내린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원고를 마무리합니다. 2015년 임미누엘지 커피 여행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글 편집부 김범진

어머니와의 세 가지 약속



<http://www.history.com/topics/john-d-rockefeller>



록펠러의 어린 시절과 관련해 '어머니와의 세 가지 약속'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 일화는 그가 대사업가로 성공한 뒤 발표한 자서전에서 고백한 것이다. 그가 자서전을 낸 뒤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께서 이번 출간하신 자서전에서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어머니가 주신 세 가지 유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록펠러는 이렇게 답했다.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켰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 어머니께 받은 유산이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의 유산이었지요. 그 신앙적 유산을 받은 것이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물었다. "세 가지 신앙 유산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머니에게서 받은 첫 번째 유산은 십일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나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습니다. 나는 용돈을 20센트씩 받았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십일조 헌금을 해야 한다면서 십일조 습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사업에 대한 모든 비전을 기도 중에 얻었고 십일조로 드렸습니다. 내가 만일 그때 어머니에게서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나중에 백만 불을 벌었을 때 십만 불이라는 십일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에게 철저한 십일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엄청난 돈을 벌 때도 변함없이 십일조를 정확하게 드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성공하게 된 두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에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어린 나를 데리고 40분쯤 일찍 교회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레아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맨 앞자리를 가장 큰 축복의 자리로 생각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무엇입니까?" "부자로 성공하게 된 세 번째 신앙 유산은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늘 목사님의 말씀을 따랐고, 무슨 일이든 교회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고 항상 순종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록펠러는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다. 하지만 교회가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늘 순종의 미덕을 보여 주었고, 평범하면서도 순수한 교인의 자세를 견지했다. 그는 그런 자세가 어머니의 기본적인 신앙 교육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면서 20년, 30년 후에 그것이 반드시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제학을 나는 철저히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십일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록펠러 (이채운 지음) 중에서

식당나무

식당나무(사 41:19)는 아카시아(ACACIA) 나무 또는 조각목(출애굽기 26회, 신명기 1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할 때 지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TABERNACLE) 건축의 주재료로 알려졌다. 식당나무는 이스라엘의 광야, 특히 시내 광야와 요단 계곡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다. 물이 없고 기후가 척박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잎이 작으며 또한 가시가 많고 구부러진 나무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또한 식당나무는 흑단처럼 검은색을 띠며, 뛰어난 가벼고 부드러운 재질의 나무이다. 그리고 나무의 수분 증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기둥의 나이트가 촘촘히 되어 있으며, 재질이 단단하고 비틀림이 적으며 잘 썩지 않아서 훌륭한 목재로 그리고 가구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승에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배를 만드는 재료로 식당나무를 자주 이용하였다고 한다.



주로 구부러져 있는 식당나무의 모습에서 우리 내면의 자화상을 보게 된다. 또한, 가시가 많은 식당나무는 바람이 불면, 가시로 인하여 주변의 가까운 나뭇가지에 자주 상처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나무의 외적인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난 자아로 인해 주위의 형제자매들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와 아픔을 주곤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 번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척박한 광야에서 나서 자란 평범하고 보잘 것없어 보이는 식당나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짓는 주재료로 선택되었다. 성막 건축에서의 식당나무의 사용처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먼저 성소의 기둥, 성소 바깥의 널판과 널판띠, 성소 내의 분향단, 떡 상, 금 촛대, 지성소 안의 법궤(언약궤)와 채, 성소 마당의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참으로 대단한 반전이며 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파푸아 뉴기니의 포트 모즈비 원주민 교회에서는 아침 아홉시 경이 되면 거의 오백 명이 가까운 원주민들이 모여들고, 곧 그 좁은 공간이 거의 가득 차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의자를 치우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두 시간씩 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곤 하였는데, 그런 집회를 과거에는 거의 본 적이 없었다. 몸에 이상한 장식과 문신을 한 원주민들이 벌거벗은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헌금 시간이 되자 그들이 낸 헌금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희한한 것들이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돈을 대신하는 금이나 은이 아니었다. 그들이 헌금으로 가져온 것은 창 325개, 조개껍데기로 만든 팔찌 65개, 활 92개, 화살 180개, 그리고 방패, 북, 목걸이, 깃털 등의 장식품들이었는데, 선교사들이 환산해 보았더니 모두 30파운드 정도나 되는 엄청난 액수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액면의 값어치가 아니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이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아직도 광야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깊은 시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상태인가? 온전한 예배도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간절한 기도도 하기 어려우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터널 속 같은 상태인가?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과연 언제인가? 내가 기다리는 그때인가, 아니면 그분께서 정하신 때인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제적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아마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일 것이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아이와 같은 우리, 때로는 세찬 바람이 내 귀를 때리며 지나가고 마음속 깊이 폭풍우가 몰아쳐 온몸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지만,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고(히 9:11-14), 예수님께서는 염소나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드리셨다. 풀도 없고 메마른 광야에서 나서 자랐지만, 주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결국 하나님의 성막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자리에까지 가게 된 식당나무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겨 보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성전인(고전 3:16) 마음의 성전을 잘 가꾸고, 영이신 하나님께 날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요 4:24)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마음에 깊이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바른 인격 안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겸손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식당나무 같은 귀한 나무로 우리 모두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 유소진 목사

기쁨의 찬가

아찔한 서커스 같은 삶의 고개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인생의 바람 앞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주님...
얼어붙은 땅과 같은 이들에게
당신의 은혜가 날마다 내리게 하옵소서
척박한 나무 장작 같은 마음에
분수 뿌리듯 당신의 은혜가
적셔지게 하옵소서
거친 숨 몰아쉬는
나른하고 차가운 사람들의 마음에
저녁밥 피어오르는
따스한 온기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쁨이 증발해 버린 이들에게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불개 물든 육체의 거치른 별판 위를
주님의 손길이 고요히 덮이어
깊은 눈물의 샘을 자극하게 하옵소서

주님...
비록 실상은 사막과 같지만
눈가에 고여 있는 눈물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지는 해를 등에 지고
숫아나는 해를 향해
유유히 걸어가는 용기를
지니게 하옵소서

김학중 (안산 꿈의 교회 담임)



크리스천 명언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J. HUDSON TAYLOR



겨울철 차가운 손,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체온도 낮아지는데 추위를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긴다. 또한, 수족냉증, 거친 피부 결, 부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몸속을 따끈따끈하게 해주는 음식 9가지를 소개한다.

단호박

탄수화물, 섬유질, 비타민, 무기질이 들어 있고 카로틴 형태의 비타민 A가 풍부하다. 호박 씨에는 필수아미노산이 많아 두뇌 발달에도 좋다. 단호박은 찌서 그냥 먹거나 꿀, 잣가루를 뿌려서 먹고 얇게 썰어 전자레인지에 15초 정도 돌려 바삭바삭한 과자로 만들면 온 가족이 먹기에 좋다.

생강

생강은 여러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고, 설탕에 절여 과자처럼 만들어 먹기도 한다. 소화불량·설사·구토에 효과가 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해열 작용을 한다. 소화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생선회, 고기요리에 곁들이면 좋다. 껍질을 벗긴 생강과 대추를 달여 꿀을 조금 타 수시로 마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홍삼

혈관에 쌓인 노폐물을 없애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피로 해소와 성인병 예방에 좋다. 환이나 편으로 가공한 제품을 먹어도 되고 홍삼 1뿌리에 물 4l 정도를 부어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 들 때까지 은근히 달여 물처럼 마시는 것도 좋다.

양파

양파 껍질에 있는 프라노이드라는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시스틴 유도체는 혈관 내벽과 혈액을 청결하게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또한, 나트륨의 체외 배출을 돕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좋은 식품이다. 송송 썬 부추와 함께 고기를 먹을 때 곁들이면 잘 어울리고 가열하면 달콤한 맛이 나므로 감자, 피망, 당근과 함께 볶으면 아이들도 잘 먹는다.

마늘종

마늘종은 비타민 C가 많고 섬유질이 풍부해 동맥경화, 암 예방에 좋은 식품. 마늘종에 들어 있는 유화이릴은 비타민 B군의 흡수를 도와 장을 튼튼하게 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어 노화 예방에도 좋다. 볶음이나 장아찌로 만들어 밥반찬으로 곁들이면 좋는데, 찬 성질인 돼지고기와 함께 볶으면 서로 맛이 잘 어울린다.

연근

연근에 들어 있는 뮤신은 소화를 촉진하고 위벽을 보호해준다. 연근을 자르면 단면이 검게 변하는데 이는 타닌과 철분 때문이다. 타닌은 수렴과 지혈 작용이 있어 치질, 궤양, 코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뿌리채소로는 드물게 비타민 C가 들어 있고 몸속에서 천천히 흡수되어 다이어트에도 좋은 식품이다. 어묵, 파리고추, 우무와 함께 조려 먹거나 부침가루를 입혀 전으로 부쳐 먹어도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얇게 썰어 연근 칩을 만들 수도 있다.

밤

영양가가 높고 소화가 잘돼 어린이의 영양 간식 재료로 좋다. 위장과 비장의 기능을 좋게 해 속을 편하게 만들어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삶아 먹거나 오븐에 구워 먹고, 평소에도 밥을 할 때 식구 수대로 한두 알 넣어 먹는다. 삶은 밤을 으개 플레인 요거트와 섞으면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이나 저녁 밤참으로 먹을 수 있다.

사과

사과 성분 중 당분과 유기산, 펙틴은 몸 안에 쌓인 피로물질을 제거하는데, 펙틴은 장운동을 자극하여 변비를 없애는 데 좋다.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사과가 끝물일 때 대량으로 구매해 사과 차를 만들어두면 초여름까지 두고 먹을 수 있다.

부추

부추의 줄기는 설사를 멎게 하는 지사제로 쓰이고 부추즙은 코피가 났을 때 마시면 지혈에 도움이 된다. 부추에 들어 있는 아릴 성분은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해 변비 예방에 좋다. 다른 채소와 함께 곁절을 하거나 고기에 곁들이는 소스에 부추를 송송 썰어 넣어 먹는다. 양파, 애호박 등 따뜻한 성질의 재료와 함께 부침개를 만들어 먹어도 좋다.

출처 WWW.TOTALSPORTS119.CO.KR





CHRISTMAS FAMILY TRADITIONS



12월은 한 해를 무사히 보낸 안도감과 훌쩍 지나가 버린 시간에 대해 아쉬움,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는 설렘이 뒤섞여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익숙한 크리스마스 찬송과 캐롤, 반짝이는 트리 장식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말모임 등으로 이 시간을 즐깁니다. 그러나 이런 분주한 때에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12월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물들어 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12월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매일 밤 촛불 밑에서 하루 한 장씩 성경 읽기를 같이 한다.

25가지 가족 크리스마스 액티비티를 적은 종이를 작은 유리병에 넣는다. 앞으로, 그날그날 뽑은 액티비티를 하도록 한다. 여기 있는 것 외에 각자의 가족 특징에 맞도록 12월에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첨삭하면 더 좋다.

크리스마스 디너를 할 때, 늘 여분의 세팅을 하나 더 한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거나 외로운 사람을 위한 여분을 준비해 두는 전통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마당에 나가 마음껏 밀가루 눈싸움(A FLOUR FIGHT)을 해보자! 눈이 잘 안 오는 따뜻한 지역에 사는 우리는, 눈 대신 밀가루로 눈싸움을 즐길 수 있다.

우리 가족만의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어 부르자! 유명한 캐롤에 우리 가족이 직접 붙인 가사를 재미있게 담아 보자. 듣는 사람들도 매우 즐거울 것이다!

예수님께 편지 쓰는 날!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자. 그가 계신 곳까지 하늘 높이 풍선도 날려 보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놀이를 해보자. 크리스마스 이브 자정이 되기 전에 온 집안의 불을 끄고, 집 안 곳곳에 양초를 준비해 둔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같이 집안 곳곳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인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25일 되면 집안의 모든 양초가 켜지도록 해보자.

집 안 한 곳에 마구간 장식을 작게 만들고, 그곳에 아이들이 아기 예수 인형을 직접 꾸며서 놓아두도록 한다.

'크리스마스 무비 나잇'을 한다! 평소보다 화려한 팝콘을 준비해서 같이 먹으며 가족끼리 영화를 본다.

작은 유리병에 가족들의 이름을 적어 넣고 제비뽑기를 한다. 자기가 뽑은 사람을 위해 그날은 비밀스럽게 특별 봉사를 해주도록 한다.

크리스마스 오너먼트 만들기의 밤을 한다. 가족들이 각자 하나씩 만들어 트리에 걸도록 한다.

<크리스마스 트리 피크닉 데이>를 한다. 크리스마스 트리 주위에 피크닉 돛자리를 깔고, 핑거 푸드를 먹으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다. 트리 주위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며 즐긴다.

가족들이 다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25가지 기적을 찾아 이야기하는 <기적의 밤>을 갖도록 한다.

가족들끼리 서로를 위한 '핸드메이드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한다.

뒷마당에서 다같이 마쉬멜로우를 구워 먹으며, '크리스마스 빙고' 게임을 한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읽기 시간을 가진다. 다 같이 둘러앉아 누가복음 2장을 읽는다.

글, 번역/ 편집부 한연선

출처: WWW.THE36THAVENUE.COM/25-CHRISTMAS-TRADITIONS에서 발췌, 번역



미국 안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 크리스천들이여, 교회들이여 깨어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며, 진정한 기도에는 늘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땅,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올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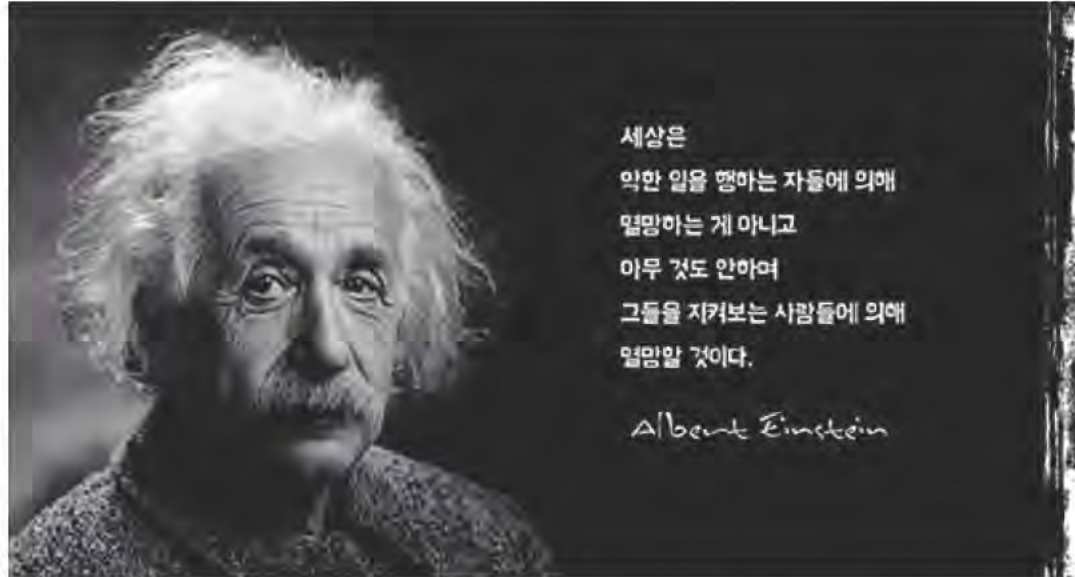
반기독교 사례들

-오바마 정부와 언론들의 이중잣대 정책들

JOE KENNEDY는 중동 걸프 전쟁 참전이며 워싱턴에 있는 BREMERTON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의 (FOOTBALL) 코치입니다. KENNEDY는 어느 날, 기독교 영화인 "FACING THE GIANTS"를 보고 깊이 영감을 받으면서, 자신도 영화 속의 코치처럼 앞으로는 게임의 승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08년부터 미식 축구장(FOOTBALL FIELD)을 걸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선수의 안전과 자신의 팀이 공정하며 씩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왔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월이 흐르며 많은 학생이 코치를 따라서 기도하며, 그들 또한 그들의 삶에 변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럿, 반기독교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는 워싱턴 주인지라, BREMERTON 학교 역시 코치에게 매우 어려운 요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게임 전에 기도하지 말고, 게임 후에는 선수들에게 영적으로 동요하는 말이나 영감 주는 말도 삼가고, 혹시 학생들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코치는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숙여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사항들을 지키라는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사위적 잔인
기에서 최대의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인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끼치는
침묵이었다고.

Martin Luther King, Jr



세상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 의해
멸망하는 게 아니고
아무 것도 안하여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Albert Einstein

이런 요구에 코치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생활을 20년씩이나 하면서 헌법과 시민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깨닫게 된 것은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헌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코치는 그날 저녁 금요일 게임에서도 기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으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저의 기독교 신앙을 숨기지 않습니다. BREMERTON 고등학교 미식 축구장을 포함해서입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 공립 학교 중에서 COMMON CORE STD를 받아드린 학교들은 이슬람을 문화, 종교로 가르치면서 알라에게 하는 기도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따라 하게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무슬림 학생들의 기도 의식은 문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반면,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라도, 방관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습니다.

-이슬람엔 종교 자유를, 기독교엔 벌금을?

무슬림 직원 2명이 자신의 이슬람 종교적 신념을 STAR TRANSPORTATION 운송 회사가 위반하게 했다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연방 대법원에서는 운송 회사가 무슬림 직원의 신앙을 위배하게 했다고 24만 불씩이나 보상금을 물어 주게 하였고요. 참으로, 그동안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과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슬림 죽인 총기 사건은 '중오범행' vs 크리스천을 죽인 총기사건은 '총기규제' 문제?

6월, 7월 포함, 9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오레곤 총기 사건 때까지 겨우 3개월 동안 총 20여 명이 넘는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범인의 총기 사건 희생자가 되었음에도, 오바마 대통령과 언론은 단지 'GUN CONTROL, 총기제한' 이슈로만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4월에 무슬림들 3명이 총기사건에 의해 사망하자, 어떤 INVESTIGATION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이미 오바마 정부, FBI, 사법부, 언론들은, '이슬람 중오범행'으로 모든 언론은 거의 도배가 되고 "범인은 살인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안에 들어온 거짓의 영,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분별력으로 세상에 들어가 '빛과 소금'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사명을 다 해야 할 때입니다.

글 새라 김 사모

고난 후의 축복



저의 집은 기독교 집안이 아니어서 믿음이 깊지 않은 상태로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군대 3년을 끝내면 호남 정유나 여수 석유 화학 단지에 있는 대기업 연구소에 직장이 보장되어 안정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행복한 젊은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군대 문제도 저의 직장과 마찬가지로 논산 훈련소에서 3개월 훈련만 받으면 서울에 있는 집 가까운 군부대에 배치되어 편안하게 3년 후 제대하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꿈을 안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나 훈련받고 논산을 떠나 제가 있을 부대라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신서면 대광리라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최전방 철책선과 마주 보이는 곳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밤에 도착해 보니 기차역에서도 이북의 대남 방송이 짹짹 울리고 그것에 대응해 남한의 대북 방송이 크게 울려 퍼지는 상상을 초월하여 제정신을 대혼란에 빠지게 하는 최전방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흉측한 지옥 같은 곳에 오게 되었는지 악몽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냉엄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 떨어진 애들은 사회에 있을 때 모두 데모를 주동하다 잡혀 고생 잔뜩 하라고 최전방 소총부대에 의도적으로 찍어 보낸 애들

이었습니다. 또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제가 화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게 맞는 직책이 없다고 사병 식당 취사병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부터 제 삶은 상상을 뛰어넘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남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엄청난 양의 쌀을 씻고 밥 짓는 것으로 시작했고 점심과 저녁까지 하루 꼬박 15-16시간을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해야 했고, 9시에 일이 끝나면 내무반에 들어가 어려운 내무반 생활을 하고 거의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보초를 서야 하는 거의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최전방 철책선이 있는 연락이 되지 않는 곳이라 부모님도 제가 그런 상상이 못하는 곳에서 죽을 등 살 등 지내고 있다는 것을 거의 2-3개월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김신조와 그 일당들이 청와대 습격을 노렸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 한번 잘못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혼자서 눈물이 마를 날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는데 저한테 나쁜일만 연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맡으면서 우리 부대에 밥맛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특히 일요일에 하는 라면이 진짜 먹을 만하다는 칭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 제가 숙한 연대에 연대장님이 저를 면담한다고 해서 연대장님을 만난 후 저의 모든 것이 연대에 잘 알려지게 되었고 연대장님조차 서울 공대 출신이 왜 이 최전방에 와서 취사병으로 이 고생을 하는지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있는 연대에 군목으로 계신 박시원 군목님이 저를 찾아와 면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사정을 듣더니 시편 34편 18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가장 외롭게 느껴질 때 가장 가까이하시니까 희망을 잃지 말고 시편 34편 18절 **“여호와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뉘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를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4주쯤 지난 후,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대 바로 옆에 의정부에 HEAD QUARTER를 둔 미군 2사단에 속해 있는 미사일부대 부대원 18명이 새로 파견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미군들과 정식으로 COMMUNICATION을 할 사병이 필요한데 우리 전 부대를 통틀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병은 없으니 다음 주부터 그곳과 우리 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고 취사병 노릇은 그만하리라”는 연대장님의 지시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 뉴스가 저를 덮치고 그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박시원 군목님이 저한테 찾아와 “연대장님께서 앞으로 너를 내가 있는 군종과의 군종병으로 근무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앞으로는 내무반 생활은 그만하고 교회 안에 지어놓은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 부대 근처에 있는

주민 자녀들 공부를 가르치는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부대 뒤에 있는 산에 혼자 올라가 2-3시간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지난 11개월 동안의 고통스런 생활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박시원 군목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밑바닥에 떨어진 저의 간절한 소망을 들으셨구나 하는 기쁨에 눈물이 함께 한 것이겠지요.

이 두 가지의 큰 변동이 있고 나서 저의 군대 생활은 급격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2사단 미사일부대 미군들과 같이 일하기 시작하자 3개월 후, 미사일 부대 파견대 책임자인 Lee NELSON 중위가 “제대하면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지원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그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군에 있으면서 미국 유학을 위하여 신청서를 내고 필요한 시험과 필요한 경제적인 도움을 청구하는 서류들을 보내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장학금을 얻고 미국 대학에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저의 인생이 확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올해로 미국 와서 공부하고 삶의 터전을 잡은 지 4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저에게 크고 작은 여러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위기가 와도 항상 밑바닥에서 올려 주신다는 군대에서의 경험이 제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글 한수갑





베트남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이번 베트남 단기선교 이전에 선교 경험이라고는 10년 전 일본 단기선교가 전부였습니다. 일본 단기선교 때, 선교를 위한 준비가 너무나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고 선교를 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선교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했고, 항상 그렇듯이 저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나누던 목장 모임이 제가 단기선교를 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목원께서 "선교를 가고 싶기는 한데, 저 같은 사람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데..."라고 자신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나를 목자라고 그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 준비 제대로 못하고 다녀왔던 저의 10년 전 일본 단기선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는 중에 참피했고 그 후, '10년 동안 난 무엇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형제님께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라는 전혀 제 삶 속에서의 경험에 기인하지 않은 말을 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우리 목원 분들 눈망울이 '우리 목자 단기선교 가나

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장을 마치고, '형제님께서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겁니다.'라는 말을 자격이 없는 제가 도대체 왜? 했는지 후회하다가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 자신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일요.

많은 기도와 준비 없이 약간 얼렁뚱땅 단기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지만, 그 결단 이후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베트남 땅에서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며,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늘어가는 회사 업무와 학교를 마친 아이 픽업하는 가사 업무에 치이면서 기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아 이래서 단기선교 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인 수엔목 교회가 가까워지면서 준비되어있지 않다는 두려움과, 익숙지 않은 VBS 프로그램에서 그룹 리더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저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정말 어디라도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담한 교회 예배당 앞에는 벌써 몇몇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서먹서먹한 아이들 앞에서 베트남 인사말 하나 제대로 외우지 못한 저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나 망했다!' 그룹이 정해지고, 그룹 아이들과 인사를 하는데, 5살 정도의 작은 여자아이가 해맑은 얼굴로 제 손을 잡으면서 저에게 자꾸 베트남 말로 뭐라고 뭐라고 하면서 몇 달은 됐을 것 같은 꼬질꼬질한 사탕을 건네주었습니다.

뭐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마음도 많이 복잡하여, 사탕을 받으면서 그냥 건성으로 웃어 주지만 했는데, 답답했는지, 옆에 영어를 할 줄 아는 아이가 그 여자아이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네가 와서 아주 기쁘다! 이거 너 주려고 내가 준비한 거다! 이거 먹고 재미있게 놀자!" 그 순간 저는 그 아이를 유심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 주더군요.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

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여기에 온 너를 보니 아주 기쁘구나! 여기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가래! 준비는 내가 다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마음이 몽클해지고, 눈물이 핑 돌면서, 그제야 무거웠던 제 마음이 아주 날아갈 듯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저는 아무 걱정 없이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예 43살짜리 아이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뛰고, 춤추고, 장난하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헤어지는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꼭 안아 주며 제 손을 꼭 잡아 주던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 단기선교는 제가 갔는데, 오히려 저는 아이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세족식 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서로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후진국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저의 선입견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그 아이들을 통해 보고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성도님들께 함께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들을 통해 베트남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전 세계 복음화에 그들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물론, 저는 여전히 단기선교를 위해 성실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던 이번 제 단기선교 경험이, 저처럼 준비 부족 문제로 주저하시는 성도님들께서 결단의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글 조성주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한 해가 가고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입니다. 하루에 다르게 자라가는 아이들, 올해 초 그렇게 작아 보이고 어려 보이던 아이들이 의젓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한해도 남편의 아내로, 세 아이의 엄마로 가정을 통해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아이들로 인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때를 떠올리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하루에도 이슬이슬하고 돌발적인 상황이 수없이 발생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키울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해를 돌아보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에 집중하도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나 말씀이 풍성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늘 말씀을 접하고 암송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암송하게 시켰지만

결국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계획을 앞세워 욕심대로 양육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했으면서도 가볍게 흘려버리며 말씀을 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갔던 우주 박물관에서, 부모님과 함께 떠났던 가족 여행에서, 뭐라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진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며 감탄하던 저는 창조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그분,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자연은 바라보던 저는 문득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그 어떤 것보다 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을 귀히 여겨, 그리고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사 구원과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읽고 암송하며 묵상했던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과 사랑을 묵상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그토록 찾으셨던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내 기분과 환경에 좌지우지되어 대충 믿고 예배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날마다 내 삶에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은 더는 의무 방어가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가 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을 조명할 때 늘 옳고 그름을 제 기준에서 판단하여 남편과 아이들을 탓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은혜를 입은 자인지 알게 하시고, 저의 모난 부분을 보여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시길 원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과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 함부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저의 일상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이 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고 난 후 펼쳐는 성경책, 말씀 한절 한절 읽어 내려가는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평안한 시간입니다. 삶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을 때, 육아에 찌들어 있을 때, 때론 염려와 걱정들이 나를 삼키려 할 때 모든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집중할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하늘 평안으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한 해 일상 속에서의 주님과 말씀을 통한 사귄은 그 어떤 큰일과 사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맘 주신 주님께서 내년 한 해도 더욱 저와 우리 가정의 믿음 안에 자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길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글 우주양





하나님의 은혜

올해 일대일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목자님이 함께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쉽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해졌는지 참으로 크나큰 은혜를 받고 경험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주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려운 줄 모르고 사전 지식 하나 없이 첫 시간을 가볍게 맞이했습니다. 간단히 작성하라는 설문지부터 일대일 제자양육 숙제를 시작으로 저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은 결코 만만치 않은 자기와의 싸움임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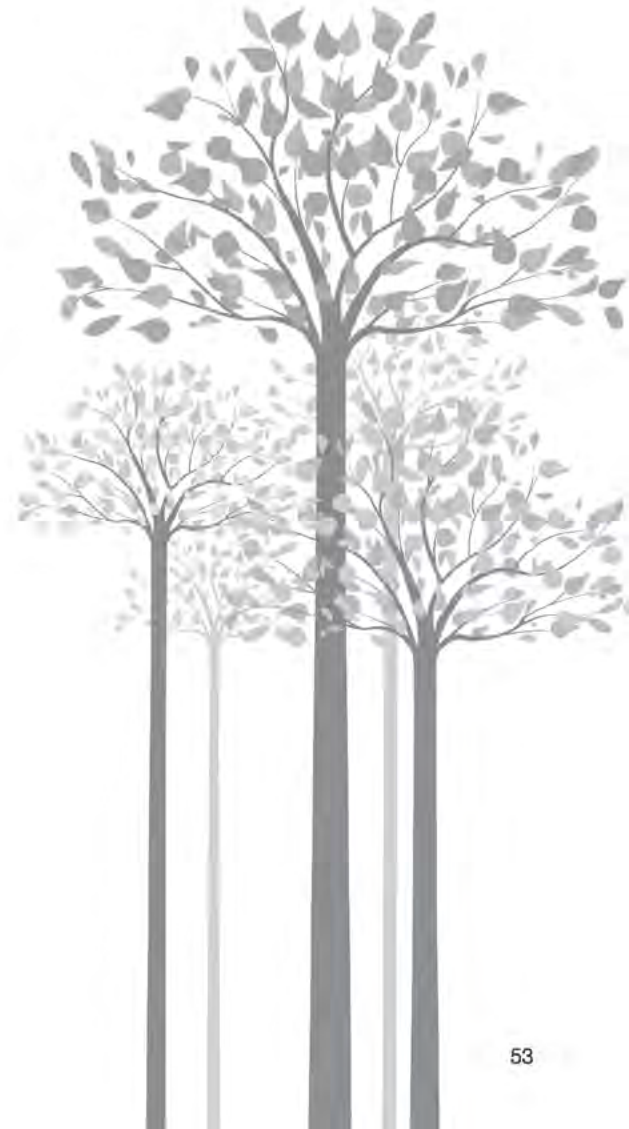
첫날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성경 읽고 설교 말씀을 기록하고 암송하며 큐티하고 연습하기까지 정말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느끼며 저도 금방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를 보내면서 조금씩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나름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저를 불안하게 했고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제 곁에 계신 줄로만 알았던 그분을 제가 궁핍하고 힘들 때만 찾으려 했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입으로만 성경을 소리 내 읽었을 뿐 그 깊고 깊은 지혜의 말씀을 새겨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듣지를 않으니 주님이 남을 통하여 메세지를 주셨는데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던 적도 많았습니다.

저는 일대일 제자 양육 시간을 통하여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과정이 고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에 울고, 제게 주시는 말씀에 감동해 울고, 이 과정 속에 성장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라며 울었습니다. 정해진 틀 속에 맞춰 나가며 성경 말씀에 감탄하면서도 기도와 교제와 전도를 통한 말씀에서는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늘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안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속에 정말 형편없는, '겨자씨 보다 못한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 주 한 주 만남이 거듭될수록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심어 주셨고 열심히 숙제하며 말씀따라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저를 축복으로 채워 주셨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오십건으로 일년 가까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일대일 훈련을 받으면서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폐암으로 고생하셨던 아버님을 좋은 날 하늘나라로 보내 주시고, 장례식까지 무사히 잘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늦춰진 일대일 제자양육 만남이 힘겨웠지만, 그 힘겨움이 저를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큐티와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저는 기쁨의 눈물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시작한 무지함이 저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였고, 성경 말씀과 기도와 준비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대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따라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받은 주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의 지체로 헌신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습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목자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고 미천한 저를 아껴 주시고 넘치는 사랑까지 채워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

글 김난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귀에 익은 찬양이었지만 내 마음으로 찬양이 들리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나의 삶에 적용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된 건 2부 예배 찬양팀에서 이 곡을 부르면서였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CCM ‘살아계신 주’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원제는 BECAUSE HE LIVES입니다. 이렇게 외국곡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가끔 두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번역을 하여 빠르게 전파가 되면 그 제목이 자리를 잡게 되어 제목이 하나가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번역이 되어 전파가 되면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찬송가는 그 특성상, 가사의 첫머리가 제목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실제의 제목과는 구별하고 있으면 찾기 편하여 그리하는 것이니까요. 살아계신 주 (원제 BECAUSE HE LIVES)는 W.J. "BILL" GAITHER (빌 게이더)가 작곡하였으며, G.O. WEBSTER가 작사하였습니다. 빌 게이더는 그래미 어워드 최우수 서던컨트리 가스펠 앨범상을 4차례나 수상하였습니다.

살아계신 주를 찬양팀에서 처음 불렀을 때가 아마도 제 삶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힘들고 실의와 낙망에 빠져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사건들과 악몽 같은 일들이 저에게 폭풍처럼 다가왔던 시기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등바등 살아가며 배부르진 않아도, 배고프진 않게 살아왔는데 또한 주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내 앞에 닥친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때 그렇게 기도하고 힘든 살림에도 빠지지 않고 심일조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주님은 저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는 건가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서 일하는데 왜 주님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건가요?” “교회에서 목자로 10년을 섬기며 주님 기쁘신 일을 했잖아요? 주님?” 나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주님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며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주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이 날 놓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주님을 멀리하려 하고 주님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것인지...

어느 날 운전을 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놀래서 차를 멈추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차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기뻐하고 그동안 내가 주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민, 슬픔과 불만과 불평, 걱정, 근심 따위를 주님께 맡기고 자유롭기로 했습니다.

35주년 기념 전야제에서 영어로 찬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 (원제 BECAUSE HE LIVES)를 찬양하면서 내

가 지금 사는 이유와 우리가 지금 사는 이유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마음에 심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한글로 찬양할 때는 나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내 삶에 기쁨이 넘친다고 표현했다면 영어로 찬양할 때는 WE LIVE BECAUSE HE LIVES라고,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이 메시지가 너무도 강하게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고 기다린 만큼 많은 것을 깨닫고 돌아온 귀한 사역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나의 선교 가는 길도 미리 예비해두셨기에 그것을 내가 알기에 선교 가는 길은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절대 주님을 멀리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도 저를 절대로 놓지 않으실 테니까요. 선교를 다녀와서 나의 삶이 180도 바뀌고 모든 것이 나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었고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저에게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 맞다.” “나는 예수면 다다.” “그런 예수님이 너에게도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글 김동규



가정에배로 회복된 삶, 그리고 우리 가정



형소미, 준수, 유나 세 아이의 엄마 형세련입니다. 10년 전 교포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에 잘 적응할 지 걱정되었던 남편은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저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고 자녀 교육 정보도 많이 얻으면서 미국 생활에 정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갑자기 남편의 신장이 나빠지고 투석을 시작하였고 2년 뒤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교회의 많은 분이 기도해 주셨고 저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세례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남편만 살려 주시면 제 목숨마저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술 후 남편은 건강을 되찾았고 생활이 안정되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옛사람은 서서히 예수님을 소홀히 하고 제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와 쇼핑, 아이들 학원 등 세속적인 삶에 빠져서 예수님 사모하기를 대충하였으나 다행히 첫째 아이 소미가 교회를 무척 좋아하고 식기도를 안 하면 밥도 안 먹는, 우리 집

전도사 역할 덕에 주일예배와 목장은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9개월 전에 저희 집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믿고 일을 맡겼던 소미 친구의 아빠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4개월 동안 집도 없이 남의 집과 호텔, 먼지구덩이인 집을 전전하면서 돈도 다 잃고, 결국 다른 사람을 다시 고용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건강이 나빠졌고, 다시 이식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서 모든 상황이 다 싫었습니다. 우리에게 사기를 친 나쁜 놈, 아픈 남편, 주제도 안되면서 낱아 놓은 세 아이, 나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 목장 식구들은 분노에 차 있던 저에게 예수님만 의지하라고 하였지만, 그런 말들은 너무 듣기 싫고 짜증이 나서, 대강대강 들고 와서는 참고 있던 마음이 목장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는 늘 남편과 싸움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힘든 친정어머니가 여행을 가신다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마마걸로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

람입니다. 시집와서 지금까지 아이 셋을 키우는 동안 엄마의 도움 없이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부터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파서 식이요법으로 삼시 세끼를 챙겨줘야 하고, 겨우 회사를 가는 것 외엔 무조건 쉬어야 하고, 아이들 셋은 각기 싸우고 소리치며 울며 격전지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엄마가 없는 첫날 저녁 5시 남편은 회사에서 늦겠다 하고, 아이들 밥을 먹고 아이들 싸우는 걸 바라보고 혼이 빠져 있던 제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민망해서 속으로만 했는데, 갈급해진 심정으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항상 일깨워 주신 목자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8살, 4살, 1살인 세 아이와 가정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하고 싶어, 찬송가를 찾아보았는데, 아는 찬송이 하나도 없어 그냥 '좋은 하나님'을 부르자는 첫째의 말에 '좋은 하나님'을 부르고 돌아가며 기도를 하고 요한복음을 읽고, 참회하지만, 그때까지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여 마지막을 주기도문도 외울 겸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아이들도 재우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 셋과 한 침대에서 잤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여서인지 몸 상태는 최악이었고, 아침이면 전쟁터인 우리 집 형편은 그대로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냥 아이들이 예쁘고, 아픈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들을 남편 없이 예배를 드린 후 사흘째 예배를 드릴 때 요한복음을 읽던 중 아이들이 너무 집중하지 못하자 혼자 저녁을 먹던 남편이 갑자기 제가 읽고 있던 요한복음을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함류해서 성경을 읽어주니, 아이들이 갑자기 큰소리로 복음을 따라 읽기 시작했고 다음 날 저녁부터 남편도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온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나 '좋은 하나님'만 부르기는 아쉬운 것 같아서 삼이 없는 찬송을 찾아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하고, 둘째는 가짜 기타를 치고, 셋째는 춤을 추고, 남편과 첫째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부르면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돌아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이들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소리 내 기도하는 남편의 기도를 들으면서 '어떻게 남편이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동안 내 안에 쌓여있던 분노도 사라져 버렸고, 아이들도 싸우는 일이 적어지고 제 마음이 차분해지며 오직 기쁨이 샘솟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가정 예배로 저희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려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은 또 한가지 기적을 주셨습니다. 집 리모델링하는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남편이 지난 5월부터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수치가 위험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주치의가 바로 신장 이식 수술을 권했는데, 신장을 기부할 분과 남편의 조직이 맞는 기부자를 찾아야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스텐포드병원에서 갑자기 DONNER 가 생겼다고 주치의의 통해 연락을 받고 망설이는 남편을 권해서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건강한 19살 청년이었는데, 그 부모가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하고, 또 그의 조직이 기적같이 남편의 조직과 많이 맞았습니다. 수술받기 전 목사님, 목장 식구들 또 교회의 여러분이 눈물과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남편은 건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살려 주셨고 저희 가족을 지켜 주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던 중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가정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감사, 기도와 간구로 살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글 형세련





하나님의 세레나데, PSE 목장

저희 PSE (박성은) 목장은 다섯 가정이 모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목장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늦은 시간에 다들 피곤하지만 30~40분 정도 더 교제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날 나눈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관여하심에 놀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고 다음 주 모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귀한 목원들이 가정을 오픈해 주시고, 선뜻 인도자로 헌신 해주셔서, 저희는 목장 모임을 하는 가정에서 목장 음식, 찬양, 말씀,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 교회에서 제공해 주시는 목장 진행안을 가지고 전 주의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질문에 답을 하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들이 나누어질 때면,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각자의 현실적이면서도, 진솔한 수많은 기도제목, 즉 가족 친지의 구원, 아기, 집 구매, 아이 교육, 이사, 회사 생활, 아이들 양육 등을 나누고 서로 중보할 때,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 될 때면, 다시 한번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숨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찬양하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화기 앱에 전송되어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한 주 동안 문자를 통해 부목자님이 정보와 이야기를 목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중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시작하며 부목자님과 자매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수고하는지 항상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집안일하고,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까지 목장 음식, 청소, 모임 후 정리로 수고하게 됩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집에 모이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배필로 주신 사람에게 죽도록 사랑하고 잘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답니다. 장호진 목장에서 많은 사랑과 섬김을 받고 분가하고 나서 PSE 목장은 2가지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원들의 빠르고 신속한 분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하는 목장, 하지만 두 가지 모두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패입니다. 아직 분가하지 못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가정 목장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인간적인 노력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PSE 목장의 목적을 설정하고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장과 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부족한 목자님과 부목자님 저를 도와 함께 섬겨주신 목장 식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장을 통하여 저 역시 많은 깨달음과 기쁨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수확은 역시 기도 응답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목장들도 그러하시겠지만, 저희 목장 역시 모임 때마다 마지막 순서로 돌아가면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곤 합니다. 어떤 기도제목은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기도제목은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기도제목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2015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목장에서 오랫동안 같이 중보해 왔던 기도 제목 두 가지를 응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생기지 않던 가정에 아이를 선물로 허락하셨고, 두 번째는 저희 가정에 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들은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간섭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저희 목장이 처음의 비전대로 분가나 영혼구원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각 가정에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목장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글 박성은, 이미나

가을이 되면 / 박채은_6학년

가을이 되면
숲과 열매를 흔들다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깨우는 신선한 바람.
맑은 산들바람에 힘이 솟는다.
나는 등실등실 풍선처럼 휘날리면서 떠오른다.

가을이 되면
풍선처럼 떠오르다가 나뭇잎으로 변해
바람에 너풀너풀 춤추면서 단풍이 다는
빨강, 주황, 노랑.
바람에 춤추다가
익은 열매처럼 떨어진다.
낙엽이 된다.

가을이 되면
서서히 익어가는
도토리, 배, 감, 사과, 밤.
다람쥐들이 열매를 머금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겨울을 준비한다.



가을 / 강은솔_6학년

가을바람이 부는 동안,
도토리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면
다람쥐가 낙엽 위를 달리면서
도토리를 봐요.
가을바람이 부는 동안
다람쥐가 도토리를 양 물고 달리면
제비가 다람쥐를 보고
다람쥐의 도토리를 뺏아 갑니다.

가을 / 조유진_6학년

노란 잎이 떨어진다
빙글빙글 떨어진다
오늘, 내일, 다음 주
언제 같이 놀까?

가을 / 장은혜_9학년

살살한 바람 느낌,
바삭바삭 발밑에 나뭇잎 소리,
빨강고 노란 단풍잎들,
달콤달콤 다홍색 단감

최 권사의 성지 순례 노트 2

4월 13일 일주일간의 터키 여행을 마치고 그리스로 왔다. 그리스에서의 첫 유적지, 빌립보 마게도나 지역에서 제일의 도시였던 빌립보 유적지를 돌아보는 중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던 감옥을 보았다. 우리는 멋지고 편안한 최신 리무진 버스로 다녀도 피곤한 여행을 사도 바울께서 어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셨을까? 이리도 먼 길을 걸어서 신발도 변번치 않았을 시대에 감옥에 갇히면서까지...사도 바울이 걸으셨던 길을 나도 걸어보며 형용할 수 없는 감회에 잠겨 보았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번째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빌립보에서 자춧빛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 루디아를 만나 시작한 유럽 최초의 가정 교회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사도 바울께서 “드로아(트로이)를 떠나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에 나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자 중 하나인 루디아(LYDIA)와 여자들이 빨래하던 강가를 가 보았다. 그 오래전 사도 바울께서 여기 앉아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감회로웠고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바울의 기도 소리 같았다. 이 강에서 지금은 세례를 주고 있다고 한다.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카로 왔다. 지금은 데살로니카(THESSALONIKI)라고 한다. 데살로니카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며 교육의 도시다. 데살로니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개척한 교회로서 견고한 믿음의 본을 보인 교회였다. 그런데 데살로니카에선 유적지를 가 보지 못하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뢰아를 지나 3시간을 꼬불꼬불 달려 칼람바라(깔람바카)에 있는 메테오라 (METEORA) 매달린 바위, 공중에 매달린, 하늘 바로 아래라는 뜻)에 갔다. 메테오라는 기암괴석 위에 세워진 수도원이다. 9세기경부터 14세기에 이르러 수도사들이 바위산에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을 지켜나갔던 수도원이다. 수도원이 23개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6개만 남아 있다. 007 영화 배경으로도 나온 유명한 곳, 195계단을 올라갔다. 이 계단은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졌고 옛날엔 도르래로 모든 걸 올리고 내리고 했다 한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높은 바위 위에 수도원을 짓고 신앙생활을 했다니 경이롭고 존경스러웠다.

아침에 데살로니카를 떠나 메테오라에 가기 전 베뢰아를 지났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신성)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라고 소개해 주고 있는데 가이드가 “오른쪽 저곳이 성경에 나오는 베뢰아입니다.”라고 했을 때 본 그곳은 참으로 이담하고 고즈넉하고 조용한 동네였다. 또 한편 데살로니카에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을 사도바울을 생각하니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던지요. 터키서도 그랬지만 이곳 그리스에서도 계속 버스로 이동하는 그 모든 구간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셨다는 사실이 진실로 죄송하고 고맙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다.

메테오라에서 점심을 먹고 5시간을 버스로 또 이동 드디어 아테네에 도착했다. 아크로폴리스(높은 데 있는 도시라는 뜻),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 소크라테스 감옥, 필로파포스 언덕, 헤로테스아티쿠스 음악당, 디오니소스 극장, 세계 문화유산 1호인 파르테논 신전...등등 헬라 세계의 종교, 예술,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던 만큼 여러 신과 신전들이 많았던 아테네. 사도바울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라며 그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서양문명의 시작 아테네(ATHINA)를 다 둘러보고 약 1시간을 다시 남쪽으로 이동 고린도에 도착했다. 이번 터키 그리스 여행의 마지막 유적지인 성지, KORINTHOS.



“너희가 이미 배복하려 이미 복되라”(고전4:8) 말씀처럼 아주 부요한 곳이었던 반면 가장 죄악이 범람했던 고린도. 사도 바울은 이곳에 1년 6개월을 유하며 교회를 세우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고 그들은 같은 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하며 복음을 전했다. 지금은 폐허가 된 고린도 교회 터, 사도 바울이 재판받던 비미터, 피레테 우물, 많은 상점이 있던 곳, 사도 바울이 디디고 다니셨을 땅을 조심스레 밟고 또 밟으며 고린도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번 여행이 뜻하지 않게 성지순례가 되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지금의 내 믿음과 처음 사랑을 잊은 것과 사도바울의 열정적인 전도 여행을 다시금 되새기고 느끼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끄러운 솜씨나마 12일의 터키 그리스에 있는 여러 성지를 다녀온 소감을 글로 다시 순례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최혜량 권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스포츠가 또 다른 우상이 된 시대에 많은 사람이 경기와 스포츠 스타에 열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소중한 기도 제목의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선교부 내의 '중보 기도팀'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응원팀입니다. 스포츠 팬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에 응원하고 응원한 팀의 패배에 실망하며 아쉬워하는 반면, 우리는 항상 이미 승리한 게임을 기쁘게 응원하는 팀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 분의 파송 선교사님과 21분의 협력 선교사님, 4곳의 협력단체, 7곳의 소수민족 교회 및 선교 단체, 53분의 목장 후원 선교사님, 3개의 미전도 종족, 두 분의 본 교회 출신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해외 선교와 내지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환영받지 못한 땅, 열악한 환경에서 오로지 주님 주신 사명으로 땀과 눈물과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리시는 그분들의 한 방울 한 방울 눈물과도 같은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선교지의 소식은 대부분 너무나 가슴 아픈 고난과 핍박과 위협, 그리고 가난함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다는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온전하심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며 도울 길을 찾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순종으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고 현지 제자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소식을 나누는 시간은 풍성한 추수 때와도 같습니다. 내가 선수로 뛰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준비도 합니다. 올해는 북한을 위해 막연히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인일하고 게으르게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강하게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깊은 회개와 각성이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기도가 기도를 낳고, 사랑을 낳는 감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선교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지원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선교부 팀원 57명이 각자 다른 은사와 섬김으로 충성하며 서로의 약함을 돌아보고 협력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아름다워 늘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설령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천국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디아스포라로 각 종족과 방언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시고 성실히 이루실 이 위대한 과업에 작은 정성, 작은 눈물, 아주 작은 사랑과 관심만 드려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ら 칭찬하시고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이 벅찬 대역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중보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연초에 목사님을 통해 받은 메시지대로 “겸손히, 사랑으로, 늘 감사하며, 담대하게” 가정에서, 일터에서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늘 기도합니다.

글 김은희 D

우리교회 좋은교회

-나눔 방명록-

“우리 교회는...
해서 좋아요!”

- “우리 교회는 '미소' 가 많아서 좋아요.”
- “우리 교회는 빵이 맛있어서 좋아요.”
- “드림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서 좋아요.”
-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 “찬양이 살아 있어 좋아요.”
-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라 좋아요.”
- “우리 교회는 가정 교회가 따뜻해서 좋아요.”
- “주님이 임재해 주셔서 좋아요.”
-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서 좋아요.”

- “제가 새로 태어난 곳이라서 좋아요.”
- “우리 교회는 편해서 좋아요.”
- “따뜻한 우리 교회, 마음이 따뜻해서 좋아요.”
- “BECAUSE WE HAVE VERY GOOD CAFETERIA.”
- “I LOVE MY CHURCH BECAUSE WE LOVE GOD!”
-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줘서 좋아요.”
- “수요 예배가 은혜로워서 참 좋아요.”
- “내년 '성경 일독'의 해로 다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아요.”
-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좋아요” .
- “진국 떡배기 같아서 좋아요.”
- “저는요 선교가 너무 좋아요.”
-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 좋아요.”
- “아름다운 에녹 어른들과 청년들이 있어서 좋아요.”
- “우리 교회는 CM전도사님이 해주는 말씀이 재미있어서 좋아요.”
-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서 좋습니다.”





예배와 영혼구원, 양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 T. 408.263.5100
4435 Fortran Dr. San Jose, CA 95134

발행인	손원배
편찬인	백영진
기획	김정신
진행	김정신/한연선/윤영숙/장은영
사진	김범진/김홍배
교정 및 번역	정현주/정은하/최정아
편집디자인	김은경/김유경